

제9차 일·한 학술토론회

국세통칙법 비교

(부제/일본) 세리사와 사회공헌
(부제/한국)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일 시: 2013/ 11/ 08 (금)
장 소: 긴끼세리사회회관

긴끼세리사회/부산지방세무사회

목 차

I 회장인사

- (1) 긴끼세리사회 회장 / 3
- (2)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 5

II 국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 비교(주제)

(일본)

- (1) 총설 / 7
- (2) 납부의무 확정 / 21
- (3) 납부 및 징수 / 43
- (4) 납세완화제도 및 담보 / 61
- (5) 국세환급 및 환급가산금 / 87
- (6) 경정·결정·부과결정 및 징수 등의 기간 제한 / 95
- (7) 국세조사 / 103
- (8)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111
- (9) 불복심사 및 소송 / 117
- (10) 벌칙 / 129

(한국)

- (1) 총설 / 135
- (2) 국세부과 / 137
- (3) 국세징수 / 193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55
- (5) 불복청구 / 257

III 세리사와 사회공헌(부제/일본)

- (1) 조세교육에 있어서의 세리사의역할 / 279
 - 1) 조세교육의 목적 / 279
 - 2) 조세교육대상 / 281
 - 3) 조세교육운영 / 281
 - 4) 세리사회의 대응 / 283
- (2) 지방공공단체의 외부감사제도 / 287

IV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부제/한국)

- (1) 총설 및 도입배경 / 347
- (2) 증여의제 규정 내용 / 349
- (3) 증여세 과세요건 / 353
- (4)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359
- (5) 증여세 과세에 대한 논란과 대책 / 361
- (6) 계산사례 / 363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こんにちは)
긴끼세리사회 미야타 요시미 회장입니다

오늘 최상곤 회장 및 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일본에 와주시고 오사카에서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 회와 당회는 1991년도에 우호친선합의서에 조인하였고, 그 후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깊게 하기 위하여 2005년11월부터 매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해마다 충실한 친선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이 학술토론회는 매년 중요한 테마를 연구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본 양국의 국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본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양국 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귀 국에서 올해 도입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으며, 당 회에서는 「세리사와 사회공헌」으로 조세교육과 지방공공단체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토론회가 양 회를 상호이해하고 우호를 더욱 깊게 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귀 회가 더욱 더 발전하시고 최회장 및 임원 여러분의 건강과 용성을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으며 인사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感謝いたします。)

2013년11월8일

긴끼세리사회
회장 미야타 요시미

회 장 인 사

풍요의 계절 가을 정취가 무르익은 금일 학술토론회를 위해 귀 회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미야타 요시미회장님을 비롯한 긴끼리사회 임원여러분과 회원님. 그 동안 8 차례의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세정전반에 대해 상호정보를 교환하여 양 회가 한층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회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엄한 세계질서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때에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이 기약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양 회는 국가는 차이나지만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어 한 방향으로 지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으므로 양 회의 우호협력에 바탕을 둔 학술토론회는 많은 발전이 기약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본 등의 동북아경제는 경제적으로 세계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선진관계로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때이고 우리 세무사들도 그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토론회의 주제인 국세통칙법의 기본구조 및 부제인 한국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일본의 세리사와 사회공헌은 적절한 테마라고 생각하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토론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긴끼세리사회 임원 및 국제부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귀 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8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최 상 곤